

LoL '별들의 전쟁' 2막 펼쳐진다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세계 최강자들이 8일부터 프랑스 파리의 르네스 아레나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 대회는 LoL 월드챔피언십 전초전 성격에 띠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해 올스타 결승전 장면.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LoL 올스타 2014 관전 포인트

오늘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서 개최 5개 지역별 우승팀 대결 방식으로 변화 한국선 롤드컵 우승팀 'SKT T1 K' 출전 팬 투표 선발 '올스타 챌린지'도 볼거리



지난해 대회 우승한 한국 대표팀.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화제의 PC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세계 최강 프로게이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룬다. 라이엇게임즈는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네스 아레나에서 'LoL 올스타 2014'를 개최한다. 전 세계 최강팀들이 모여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다. 특히 올해 e스포츠 성지인 한국에서 열리는 'LoL 월드챔피언십(일명 롤드컵)'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팬들의 관심을 끈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와 다른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올해 2회째를 맞은 올스타전을 차별화했다.

●SK텔레콤 T1 K' 우승후보 0순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회 방식이다. 이번 올스타전은 각 지역별로 가장 최근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을 초청해 대결하는 '인비테이션'과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지역별 대표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대결하는 '챌린지'로 나뉜다.

메인 이벤트인 '올스타 인비테이션'의 대상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LoL'의 정규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5개 지역이다. 하지만 소속팀과는 무관하게 인기투표를 통해 구성됐던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최근 우승팀을 초청한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다르다. 대회는 5개 팀 중 그룹 스테이지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결승에서 맞대결할 2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팀은 5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쥘다.

한국은 'LoL 챔피언스 스프링'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LoL 챔피언스 윈터' 우승팀인 'SK텔레콤 T1 K'가 출전한다. SK텔레콤 T1 K는 지난해 '롤드컵'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북미에서

●홍민기·박상면, 올스타 챌린지 출전

'올스타 챌린지'는 팬 투표를 통해 5개 지역별로 2명씩, 총 10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 2팀으로 나뉘 벌이는 일종의 이벤트 경기다. 한국에선 '매드 라이프' 홍민기와 '사이' 박상면이 선발됐다. 둘은 투표 기간 내 단 한번도 1·2위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둘 모두 'CJ엔투스 프로스트' 소속으로,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LoL 올스타 2013'에 이어 2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는 "게임 팬들이 보내준 성원 덕에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올스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전 세계 'LoL' 팬들과 e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프랑스) |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kye76

Doctor's Column | 강남베드로병원 강준기 원장

미세현미경레이저술로 지긋지긋한 디스크 탈출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점차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탈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선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허리부위에 걸친 통증이다. 이러한 통증은 허리를 숙이거나 많이 사용하는 활동에서 더욱 심해진다. 빠져 나온 디스크가 허리의 움직임에 의해 척추 주변의 신경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자극으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등의 방사통, 신경장애증세가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신경증세는 허리디스크와 같은 디스크질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척추질환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불안정한 척추체가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증상의 악화는 시간문제이다. 불안정한 척추는 외부로부터 더욱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디스크 탈출을 촉진시켜 균형을 부르게 된다. 심해지는 신경증세로 인해 최악의 경우 하지마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허리를 비롯하여 엉치뼈, 허벅지, 종아리에 걸친 신경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진단과 치료를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허리디스크는 발병률과 환자비율이 매우 높은 척추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법 역시 고

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남베드로병원(양재역 4번 출구 위치)의 미세현미경레이저술이다.

미세현미경레이저술은 미세한 피부절개로 이루어지는 최소침습적 치료법이다. 특수 현미경을 병변 부위에 삽입한 뒤 환부를 확대 관찰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한다.

첨단 레이저 장비를 통해 병변 부위를 상세하게 관찰하며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변 디스크 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손상 없이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미세현미경레이저술은 다른 척추질환 수술법에 비해 시술시간이 현저히 짧다. 또한 미세한 피부절개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출혈, 각종 부작용에 대해 자유로운 편이다. 수술 후 회복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회복 기간 역시 그리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강준기 원장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전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
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전 가톨릭대학교 신경외과 주임교수
영국 런던대학 신경병리연구소 신경외과학 수료

카잔자키스 이야기잔치에 초대합니다

10일 대학로 방통대 역사기록관서 개최

'한국 카잔자키스 친구들(회장 임해리)'이 '한국그리스협회(회장 유재원)'와 함께 1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에서 제6회 카잔자키스 이야기잔치를 개최한다. '그리스인 조르바', '수난', '최후의 유희' 등의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사진)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의 작품 중 한 선량한 젊은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의 제물로 삼는 사제, 공동체 원로들의 파멸적인 만행을 통해 인간 내면의 비열한 탐욕을 밀바다까지 해부한 작



품인 '수난'을 다룬다. 유경숙·심아진(이상 소설가), 이은하(중앙대 교수), 최진용(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이공희(영화감독)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기동 작가의 주제론 '이 시대에 예수의 수난은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이어 김석만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설로 '수난' 독회를 진행한다. '한국 카잔자키스 친구들'은 198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성된 비영리 단체로 119개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국제 카잔자키스 친구들'의 한국지부이다. 양형모 기자

경제 브리핑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데이' 이벤트

맥도날드가 10~11일 이틀 간 드라이브 스루 이용 고객에게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인 불고기 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드라이브 스루 데이(Drive-Thru Day·사진)'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해 차 안에서 주문을 하면 차량 한 대당 불고기 버거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서비스로 7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매장당 선착순으로 1000개씩 추후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맥도날드 제품 할인 및 원플러스 원 쿠폰이 포함된 쿠폰북을 증정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메라 시즌2' 출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 '싸이메라'에 회원제계와 포토셰어링 기능을 적용한 '싸이메라 시즌2(사진)'를 구글플레이와 티스토어에 출시했다. 서비스의 핵심은 새로운 방식의 '소셜 에디팅(Social Editing)'. 사진 편집을 통해 원본 사진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재미있는 소통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들은 앨범을 만들어 서로

간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앨범에서 친구의 원본 사진에 대해 미용, 브러싱, 폴라로이드 기 존 편집기능을 활용하거나 얼굴을 크게 키우는 페이스랩, 말풍선, 스티커 등 새롭고 신비로운 다양한 추가 기능들로 손쉽게 편집해 재공유할 수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액세서리 컬렉션 판매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5월31일까지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차량 액세서리 및 머천다이즈 아이템을 인화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 컬렉션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 최고 25% 할인된다. 피아트 친퀘첸토(500) 어린이용 패달 자동차는 20만5400원, 지프 브랜드의 그랜드 체로키 풀로 셔츠는 5만6900원, 테디베어 22cm모형은 1만4900원에 각각 구매가 가능하다. 크롬 도어 노브, 퍼포먼스 패달 키트, 랭글러 소프트 탑, 루프 캐리어, 피아트 500 크롬 프론트 장식 등은 20% 할인된다.

청정원, 온진플레이도시 초대 이벤트

대상(청정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웹사이트인 청정원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진플레이도시 초대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응모자 중 30명을 뽑아 온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스파 3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응모자 전원에게는 워터파크&스파 50% 우대권을 증정한다. 제공받은 이용권 및 할인 우대권은 6월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청정원 커뮤니티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현대차 'LF 쏘나타' 4월 내수판매 1위

1만1904대 판매...현대차 14%↑ 일등공신 한국GM은 전월 대비 판매량 0.6% 감소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사진)가 4월 내수판매 1위를 차지했다.

7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차 쏘나타는 4월 내수시장에서 1만5392대를 판매하며 베스트셀링 모델이 됐다. 모델별로는 구형(YF)이 3184대, 신형(LF)이 1만1904대, 하이브리드가 30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713대) 대비 226.6% 신장한 수치다. 현대차는 쏘나타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4월 전체 내수 판매에서 전월 대비 14% 신장된 6만5891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

는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다. 4월 내수시장에서 6153대를 팔아 전월(5588대) 대비 판매량이 10.1%나 늘었다. 소형 SUV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QM3 효과가 컸다. QM3는 4월에만 1445대가 판매되며 3월 대비 판매량이 107.9% 신장됐다.

쌍용자동차는 6010대를 판매해 3월의 5850대 대비 2.7% 성장했고, 기아자동차는 3월과 4월 판매대수가 3만9005대로 같았다.

유일하게 판매량이 감소한 회사는 한국GM이다. 4월 내수 판매대수 1만3086대로 3월의 1만3161대에 비해 0.6% 줄었다. 준대형인 알페온의 판매 감소율이 15.4%로 가장 컸고, 주력차종 중 하나인 스파크의 판매량이 6.5% 줄며 판매량이 뒷걸음질쳤다.



한편 국산 완성차 업체들의 4월 총 판매량은 80만2657대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가 13만145대, 수출이 67만2512대였다. 이는 전월의 73만6355대보다는 9%, 지난해 4월보다는 8.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수 판매량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3월 12만1416대가 팔렸던 내수시장은 4월 13만145대를 판매하며 7% 가량 성장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

28일까지 입법예고...행정절차 최소화 방침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돼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의거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에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애·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rabi@donga.com 트위터 @rabi361